
서유럽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2020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오스트리아·이탈리아
2. 출장목적 : 유럽의 문화유적 보존 관리 실태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환경시설) 등 사례 연구를 통해 관광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3. 출장기간 : 2020. 1. 7(화) ~ 1. 14(화) / 6박 8일
4. 보고자 및 출장자

소 속	성 명	비 고
대덕구의회	서미경	
	김수연	
	박은희	
	이경수	
	김태성	
	이삼남	
	오동환	
	김홍태	
	김용성	수행
	조원후	수행
	송상용	수행

상기와 같이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합니다.

차 례

I. 출장 개요	3
II. 연수국 주요현황	7
1. 오스트리아 / 7	
2. 이탈리아 / 10	
III. 방문 기관별 주요내용	13
1. 비엔나 쓰레기소각장 / 13	
2. 상길겐시청 / 14	
3. 게트라이트 거리 / 16	
4. 피렌체 보육원 / 17	
5. 이탈리아의회(몬테치토리오 궁전) / 18	
IV. 연수지역의 시사점	19
V. 연수성과(느낀점)	20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I 출장개요

1. 출장 목적

유럽의 문화유적 보존 관리 실태와 도시계획 및 기반시설(환경시설) 등 사례 연구를 통해 관광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우수 정책사례를 벤치마킹 하고자 함.

2. 동기 및 배경

방문 도시는 세계적 문화유적 및 관광 인프라 조성이 잘 되어있는 도시로 대덕구에 도움이 되는 발전 방안 모색과 의원의 국외 견문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창출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함.

3. 연수국 및 일정

- 기 간 : 2020. 1. 7(화) ~ 1. 14(화) / 6박 8일 ※세부일정표 참조
- 대상국가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4. 연수자 명단

○ 인 원 : 11명(의원 8명, 수행 직원 3명)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수자	소계		6명	
	대덕구의회	의 장	서미경	여
	대덕구의회	부의장	김수연	남
	대덕구의회	의 원	박은희	여
	대덕구의회	의 원	이경수	남
	대덕구의회	의 원	김태성	남
	대덕구의회	의 원	이삼남	여
	대덕구의회	의 원	오동환	남
	대덕구의회	의 원	김홍태	여
	대덕구의회 (수 행)	행정5급	김용성	남
		행정5급	조원후	남
행정7급		송상용	남	

5. 연수 중점분야

- 도심 한가운데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 사례 및 주민 갈등 해결 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에서의 접목방안 모색
- 문화재의 보존과 천혜의 자연자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연계한 관광산업에 대한 비교분석
- 유럽의 지방의회와 우리 의회의 공통점 및 운영사례 비교

6. 세부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1/ 7(화) (1일차)	대 전 인 천 비엔나	KE937	08:00 13:15 16:50	대전 출발, 공항 향발 인천국제공항 제2청사 출발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공항 도착(11시간35분 소요) 석식 후 투숙	
1/ 8(수) (2일차)	비엔나 팔츠부르크	전용차		조식 후 09:00 (공식방문) 비엔나 쓰레기소각장 방문 12:00 중식 14:00 (현장탐방) 오페라극장-성슈테판 성당까지의 게르트너거리 도로시설물 견학 16:00 팔츠부르크로 이동(290km, 약 3시간30분 소요) 19:30 석식	
1/ 9(목) (3일차)	팔츠부르크	전용차		조식 후 10:00 (공식방문) 상길겐시청 방문 ●이름: Rathaus St.Gilgen 12:00 중식 14:00 (현장탐방) 자동차없는 보행자만의 게트라이트 거리 견학 등 18:00 석식	
1/ 10(금) (4일차)	팔츠부르크 베니스	전용차		조식 후 08:00 베니스로 이동(430km, 약 5시간 소요) 13:00 중식 14:00 (현장탐방) 지난 11월 50년만의 홍수로 도시의 70%가 잠긴 베니스 거리 및 도로시설물 견학 18:00 석식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업무수행내용	비고
1/ 11(토) (5일차)	베니스 피렌체 로 마	전용차	08:00 13:00 16:00 19:00	조식 후 피렌체 이동(3시간30분 소요) (공식방문) 피렌체 보육원 방문 로마로 이동(270km, 약 3시간 소요) 석식 후 투숙	
1/ 12(일) (6일차)	로 마	전용차	08:00 18:00	조식 후 - 나폴리 이동(219km, 약 3시간 소요) (현장탐방) 아름다운 절벽도시 소렌토 조망시설 견학 로마로 귀환 후 석식 및 투숙	
1/ 13(월) (7일차)	로 마	전용차 KE932	09:00 12:00 13:00 22:15	조식 후 (현장탐방) 바티칸시티 문화 및 시설 견학 중식 (공식방문) 몬테치토리오 궁전 시설물 견학 • 1871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탈리아의회의 하원으로 63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음 로마 레오나르도다빈치공항 출발	
1/ 14(화) (8일차)	인 천		17:00	인천 도착	

II 연수국 주요현황

1. 오스트리아

□ 현 황

- 수도 : 빈
- 면적 : 83,871km²(세계 115위)
- 인구 : 8,955,102명(세계 97위/ 2019년 6월 기준)
- GDP : 4,557억 4천만\$(세계 28위/ 2018년 기준)
- 1인당 GDP : \$50,250(세계 15위/ 2018년 기준)
- 언어 : 독일어/ 종교 : 카톨릭 73.6%, 개신교 4.7% 등
- 일반현황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이며, 유럽의 6개 영세중립국 중 하나이다. '동쪽 제국(eastern empire)'이라는 뜻의 국명은 독일어(語)로 'Osterreich'라고 하며, 'Old German Ostarrichi'에서 유래했다.

지금은 유럽연합이 동유럽으로 확대되면서 동유럽과 만나는 중유럽의 관문으로 경제특수를 누리고 있으며, 낙농업과 관광업이 주요산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철강과 기계공업이 기반산업이고,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산업의 10%아래로 작다.

또한 빈 유엔 본부 안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노동기구(ILO) 등 다수의 국제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 오스트리아 방문도시

1) 빈(비엔나)

- 빈은 현재 오스트리아의 수도이며 오스트리아의 연방주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아서 하나의 도시라서 압도적으로 가장 면적이 적 으면서도 인구는 가장 많은 수도의 위상이 확고한 도시다.

시내에는 슈테판 대성당 등 각 시대의 건축 양식을 보이는 교회와 쇤브룬궁전, 빈 국립 오페라 극장, 벨베데레궁, 호프부르크 등 문화 시설이 많다. 이처럼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인 동시에, 도나우 강변 에는 오스트리아 유수의 공업지대가 펼쳐져 있다.

또한 음악의 도시로도 알려졌으며, 베토벤을 비롯한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하이든 그리고 말러 등의 음악가들이 여기서 활약을 하였다. 빈 필하모니 관현악단과 빈 소년 합창단이 유명하다.

또한 1980년 1월 1일에 설립된 비엔나 국제 센터에 위치한 유엔 사무국 있으며 2011년에는 빈 카페하우스 문화가 유네스코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 잘츠부르크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수도 빈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으며 잘츠부르크는 ‘소금의 성’을 뜻하는 말로 로마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유서 깊은 도시로 기원은 암염 광산이다.

잘츠부르크는 바로크양식의 건축물과 구조물로 유명하며, 대표적으로 잘츠부르크 대성당, 미라벨 정원 등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폭격으로 많은 건축물이 파괴되었지만 바로크 양식의 많은 건축물들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 1996년 잘츠부르크 역사 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또한 음악의 도시로 모차르트의 출생지이며,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으며 음악의 도시답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과 더불어 유럽의 양대 음악 축제로 불리며 매년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잘츠부르크를 찾는다.

2. 이탈리아

□ 현 황

- 수도 : 로마
- 면적 : 301,336km²(세계 73위)
- 인구 : 60,550,075명(세계 23위/ 2019년 6월 기준)
- GDP : 2조 739억\$(세계 8위/ 2018년 기준)
- 1인당 GDP : 35,391\$(세계 26위/ 2018년 기준)
- 언어 : 이탈리아어 / 종교 : 카톨릭 90% 등
- 현황

공식 이름은 이탈리아 공화국(Repubblica Italiana/Italian Republic).

영어로는 Italy라고 표기한다.

이탈리아 수도는 로마이며 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슬로베니아 등과 이웃하고 있는 지중해의 장화 모양의 반도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고 르네상스 시대에는 유럽 예술 발전의 전진기지였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일반적으로 로마는 문화의 수도, 피렌체를 경제의 수도, 밀라노를 산업의 수도라 불린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 이은 경제 대국으로 중소기업의 지역별 특징을 따라 발달된 것이 특징이며, 주요 발달 업종은 자동차, 조선, 화학 무기 산업과 가죽 제품을 포함한 패션, 의류 산업이 발달돼 있다.

1) 베네치아(베니스)

-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베네토주 베네치아 광역시에 속하는 도시로, 영어로는 베니스(Venice)라고 한다.

현재의 베네치아는 이탈리아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이다. 아름다운 운하와 항구들은 이탈리아인들이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유산인 산 마르코 대성당, 두칼레 궁전 등 있고, '아드리아 해의 보석'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매년 엄청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베네치아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역 주민들은 베네치아를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다. 또한 도시는 홍수로 인한 침식,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도시 주변을 운행하면 거대 유람선들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상태이다.

베네치아의 경제는 주로 관광업과 조선업, 서비스업, 무역업에 의존하며, 레이스와 유리도 베네치아의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2) 피렌체

-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최대 도시이자 중심 도시다. 도시 중심에는 거대한 돔을 가진 두오모(Duomo) 성당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이는 피렌체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도시 전체가 문화유산 이다보니 거리 곳곳의 모든 것이 예술품이자 이탈리아 정부의 중요재산으로 매년 수백만이 넘는 관광객들을 찾는 도시로 1982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예술품 파손이나 낙서 등을 막기 위해 주요 관광지 예술품 주위에 CCTV를 항시 가동하여 배상조치를 위해 고발하고 있다.

피렌체의 경제는 소고기가 유명한 만큼 가죽 제품이 대표 특산품이며 구찌(Gucci) 등 명품 본사들이 모여 있다.

3) 로마

- 로마(이탈리아어: Roma)는 이탈리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며, 원래는 로마의 일부였으나 교황령으로써 독립한 바티칸 시국이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에는 유럽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포로 로마노 등 수많은 영화에서 봐 왔던 로마제국의 유적이 수없이 많아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광객으로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사생활 침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한다.

로마의 주요산업체는 엔지니어링, 전자, 화학, 인쇄, 의류, 식품가공업 등이 있으나 실제고용을 창출하는 주요산업은 관광업, 영화제작업이다.

III 방문기관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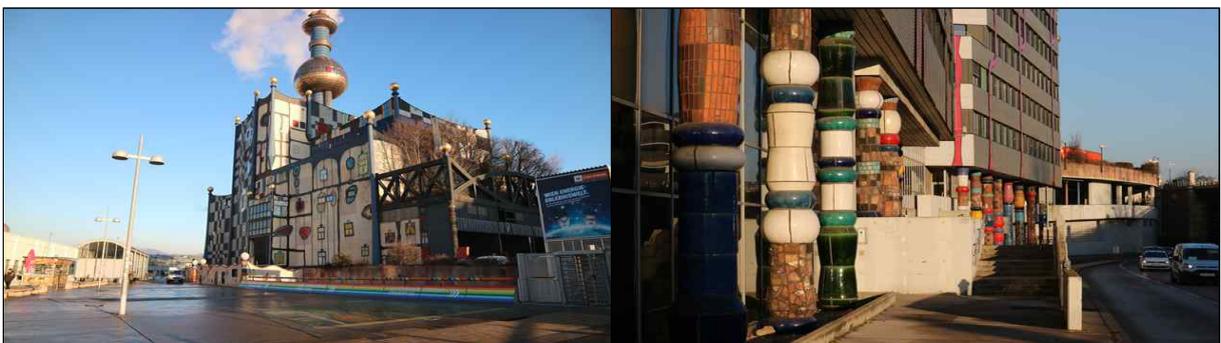
1. 비엔나 지역난방시설/ 슈피텔라우 쓰레기소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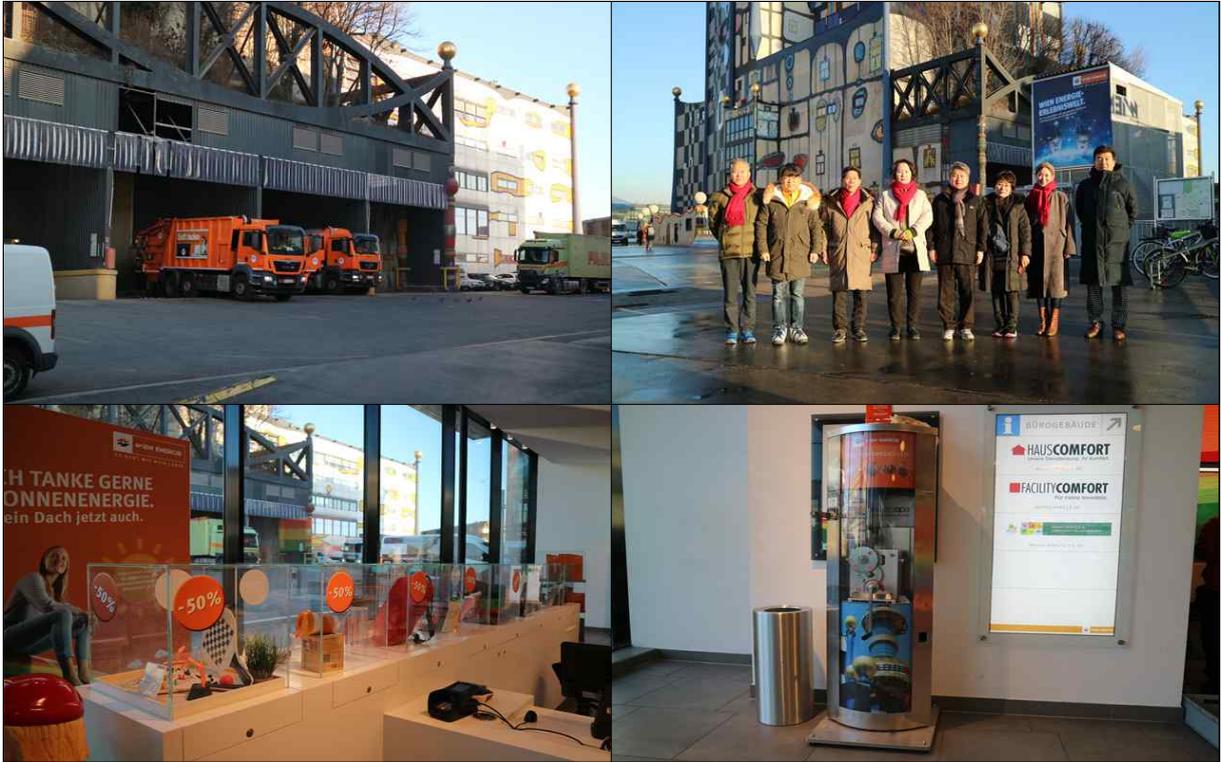
○ 장 소 : District Heating Plant Spittelau/ 슈피텔라우 랜데 45

슈피텔라우 지역난방시설(Fernwaerme Wien)은 비엔나의 쓰레기 소각장이다. 이 시설은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지만 화재로 철거되었다. 비엔나 시장인 독토르 헬무트 칠크(Dr Helmut Zilk)는 오스트리아 유명예술가인 훈데르트바써(Hundertwasser)에게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 설계를 요청하였다.

비엔나 시당국의 요청을 받은 훈데르트바써는 외형적으로 현대적인 건물과 함께 생태학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는 새로운 쓰레기 소각장의 설계에 착수하여 도심한 가운데 혐오시설을 최첨단의 무공해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경이로운 시설을 설치했다.

소각장에서는 매시간 16.5톤의 가정폐기물을 소각하여 60메가와트의 열을 얻으며 쓰레기 소각으로 나오는 열은 지역난방을 위해 배급된다. 비엔나시내에 있는 주택의 3분의 2정도가 이곳으로부터 난방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2. 상길겐시청

○ 장 소 : 상길겐(St. Gilgen)

상길겐은 알프스 북쪽의 볼프강 호수에 연한 작은 마을로 이 마을의 후원자 이름을 따서 지어 주요 도시는 잘츠부르크 도심에서 동쪽으로 24km 떨어져 있으며 구시가지 중심부는 특히 모차르트광장과 키르헨광장 주변에 바로크 양식의 가옥을 둘러싸여 있다.

인구수 약4,000명정도의 소도시로 시청(Rathaus) 건물은 작은 3층 주택 같은 건물로 우리의 청사에 비해 너무 작고 아담한 건물이 이채롭게 보이며 정문 앞에는 연주하는 어린 모차르트의 동상 분수가 있다.

오스트리아의 의회는 양원제이며 하원은 국민의회(Nationalrat)라 불리고 9개주의 입법부에 의해 4년 임기의 의원 183명은 비례 대표제에 따라 국민이 선출하며, 상원은 9개주의 연방의회(Bundesrat)가 있고 연방의원중에서 6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게트라이트 거리

○ 장 소 : 잘츠부르크 게트라이트 거리 (Getreide Strasse)

간판이 아름다운 골목인 게트라이트 거리로 들어서면 고성인 산기슭을 배경으로 한 건물들이 가로막아 T자 형 도로가 되는데, 이곳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가 '성 슈테판 대성당' 까지 이어지는 거리가 게트라이트 거리다.

게트라이트 거리는 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중세시대의 문화가 살아있는 거리로 관광객들이 시장바닥처럼 붐빈다.

게트라이트 거리 양쪽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들은 잘츠부르크를 '음악의 도시' 을 표현하려는 듯 모차르트 관련 물품 및 기념품 전문매장이 널려 있다.



4. 피렌체보육원

○ 장 소 :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Ospedale degli Innocenti)

르네상스의 대표적 건축가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했다고 해서 브루넬레스키 고아원(Museo degli Innocenti)으로도 불리며 '죄 없는 이들을 위한 보육 시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스페달레 델리 인노첸티(Ospedale degli Innocenti)는 1445년, 1월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으며, 대표적인 르네상스 시대 건축으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유럽 최초의 고아원으로 초기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인들의 박애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지금은 일부 고아원으로, 일부는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아원의 회랑의 회색빛 아치 사이 공간에 보자기에 싸인 아이들의 모습이 조각된 푸른색의 원형 도자기가 부조되어 있다.



5. 이탈리아의회 / 몬테치토리오 궁전

○ 장 소 :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있는 이탈리아 하원의사당 건물로 15세기의 건물을 헐고 19세기 초에 다시 지었다.

본래 교황 고레고리오 15세의 조카이자 젊은 추기경인 루도비초 루도비시(Ludovico Ludovisi)를 위해 건축가 잔 로렌초 베르니니(Gian Lorenzo Bernini)가 설계하였다.

1861년 이탈리아가 통일되고 로마가 수도로 된 후 이 건물에 이탈리아 하원의사당이 들어왔다. 본래의 건물이 의사당 역할에 어울리지 않자 1900년대 초에 에르네스토 바실레(Ernesto Basile)가 건물을 다시 지었으며 회의장을 아르누보풍의 장식들로 꾸몄다.

이탈리아 의회는 양원제 입법부로, 945명의 선출된 의원(parlamentari, 파를라멘타리)이 있다. 630명 하원 의원(deputati, 데푸타티)의 하원과 315명 상원 의원(senatori, 세나토리)의 공화국 상원으로 구성된다.



IV 연수지역의 시사점

□ 비엔나 지역난방시설

-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을 도심 속 예술작품으로 변화시키고, 주민 반대를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 사례를 우리구에 접목
 - ▷ 혐오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조성
 - ▷ 대화와 타협을 통한 도시계획 사업 추진
 - ▷ 계획을 통한 여유로운 사업추진
 - ▷ 우리의 집단민원 혹은 님비현상의 해결 방안 사례 접목

□ 게트라이트 거리

- 보행자의 천국, 아름다운 쇼핑거리로 중세시대와 공존하고 있는 게트라이트 거리는 우리구의 중리동 벼룩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 할 볼만함.
 - ▷ 중리동 벼룩시장의 차 없는 거리 조성
 - ▷ 문화재를 활용한 거리조성 및 도시개발 규제와 관리
 - ▷ 신규로 시작되는 도시재생 사업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

□ 문화 및 도시관리

- ▷ 유럽의 유네스코 등록문화제 관리를 위하여 사소한 재건축 및 리모델링도 허가사항으로 보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 ▷ 트램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며, 중심가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편의 제공
- ▷ 유럽의 의식수준은 횡단보도와 도로에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정지 또는 서행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편임.

V

연수성과(느낀점)

- 이번 유럽 2개국 연수를 통해 유럽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도시시설을 보면서 우리와 비교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였다.
유럽은 주변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을 지켜가면서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개발하는 것 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도시계획이 돋보였다.
- 방문도시들의 상황은 관광이 주요 수입원일거라 생각하였지만 철강, 기계공업과 영화산업 등이 주요 수입원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비교해보면 규모는 작아도 도심에 교통수단은 트램, 버스,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교통상황도 좋았음을 느끼며 보행자 전용도로는 우리의 중리동 지역을 베틀시장에도 참고할만한 부분이다.
- 그 외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건립된 도심 속에 쓰레기소각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구정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